

■수출 3,000억달러 시대 개막

‘수출 코리아’ 세계 11위 부상

30일 '무역의 날'을 맞아 다음달 초 수출 3천억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이는 2004년 수출 2천억달러를 돌파한 지 2년만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대국의 면모를 다시한번 부각시키게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의 날을 앞두고 29일 오후에 수립되는 수출 신기록, 한국무역 10대 뉴스, 10년후 무역의 주요 흐름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2006년 수출 신기록= 한국은 올해 수출이 3천200억달러를 무난히 넘어서 홍콩을 앞지르고 세계 11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는 1990년 11위를 기록한 후 처음으로, 지난해 한국 수출은 2천844억달러로 홍콩의 2천921억달러에 이어 12위를 차지했다.

이로서 한국의 수출은 2004년에 2천억달러를 돌파한 후 불과 2년만에 3천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간 수출 증가율은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2003년부터 연속 4년 두자

2,000억달러 돌파 2년만에 쾌거

중화권 수출도 1,000억달러 돌파

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 중화권 수출은 올해 1~10월중 지난해 동기 대비 14.8% 늘어난 83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연간 대 중화권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무역 10대 뉴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간행되는 '한국무역사'에서 한국무역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이는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의 채택과 수출 1억달러 달성(1964년)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진흥위원회(1965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가입(1967년) ▲종합무역상사 설립(1975년) ▲수출 100억달러 달성(1977년) ▲

최초의 무역수지 흑자(1986년~1989년) ▲외환위기와 완전변동환율제 전환(1997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수출 1위 시장 부상(2003년) ▲동시다발적 FTA의 추진과 한-미 FTA 협상 개시(2006년) ▲수출 3천억달러, 무역 6천억달러 달성(2006년)이다.

◇10년 후 무역의 10대 흐름= 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앞으로 예상되는 무역 경향 중국내업체가 특히 주목해야 할 주요 트렌드 10개를 꼽았다.

이 트렌드들은 ▲미국경제가 하락하고 브릭스(BRICS), 산유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견인차로 등장하면서 우리의 수출시장 광도변화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역무역협정이

늘어나 세계교역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에 70~80%에 이르러 FTA가 무역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될 것 ▲글로벌기업간 인수합병(M&A) 및 전략적 제휴 확대 ▲원산지 위주의 '메이드인'(Made in)보다 어떤 기업과 브랜드가 만들었는가 하는 '메이드 바이'(Made by)가 중요해질 것 ▲실버 상품과 여성소비자가 부상하고 웰빙·공정 무역·시장 양극화 등의 경향 강화다. 또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융합 ▲전자무역 시대 본격 도래 및 국가간 온라인무역 확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비중이 현재의 80대20에서 70대 30으로 변화 ▲기술 및 지적재산권의 개발 및 보호, 국제표준 선점 등의 경쟁 심화 ▲지식기반경제의 확산과 핵심 경쟁력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기업간 경쟁심화를 주요 트렌드로 들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 '500만불 수출탑' 확인코리아 나원주 대표

“AI 사태 직원들 땀으로 극복”



만불, 5천만불 달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힘써 말했다.

1965년 금성축산으로 출발한 확인코리아는 오리 종합가공처리장 건설에 따른 과잉투자과 전국을 휩쓴 AI로 2003년 부도를 맞았다가, 2005년 법원의 화의인가 조치로 고비를 넘겼다.

이후 확인코리아는 2005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삼계탕과 오리고기 538만1천달러를 수출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이는 국내 전체 가금류 수출액의 52.16%에 달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확인코리아는 올 7월부터 1년간 1천만불 수출 달성에 이어, 향후 5~6년내에 가금류 전체 수출목표를 1억달러 늘린다는 정부의 매출액에 따른 5천만~6천만불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350여 직원들의 땀이 있어 모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익산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경영난으로 부도의 아픔을 겪었던 나원주(59·인천) 대표가 3년만에 재기에 성공, 30일 제43회 무역의 날을 맞아 500만불 수출탑(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나 대표는 “앞길에는 지나온 것보다 더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나, 직원·사육농가와 함께 수출 1천

만불 수출탑(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나 대표는 “앞길에는 지나온 것보다 더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나, 직원·사육농가와 함께 수출 1천

만불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나 대표는 “앞길에는 지나온 것보다 더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나, 직원·사육농가와 함께 수출 1천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30일 제 43회 무역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에서 31개사가 수출탑을 수상한다.

또 동화산기(주) 박용관 대표가 산업포장, 구일공조(주) 이승용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 나주(주)확인코리아 나원주 대표가 산자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지역 수출기업인 21명에게 유공자표창이 주어진다.

수상기업은 다음과 같다.

◇수출탑 표창 ▲5억불탑=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3억불탑=금호피엔비화학(주) ▲7천만불탑=(주)연호전자 ▲5천만불

‘무역의 날’ 광주·전남 수출탑 수상자

탑=화천기공(주) ▲2천만불탑=동화산기(주) ▲1천만불탑=(유)세모엔지니어링, (주)신성엔지니어링, (주)장호엔지니어링, 한일종합기계(주), KS아나세산업(주) ▲500만불탑=(주)에스디엠, (주)케이이, (주)태봉, (주)호원, (주)확인코리아, 구일공조(주), 신한포토닉스(주), 심포니에너지(주), 이맥스(주) ▲300만불탑=(주)신영하이테크, 웰

드링크 ▲100만불탑=(주)거성전자, (주)세코, (주)썬테크, (주)영동물산, (주)코스, (주)태영솔루션, 아랑기공(주), 아시아전자(주), 에스엠시스템, 주영하이텍(주) ◇유공자표창 ▲산업포장=박용관(동화산기 대표), 김원순(KS 아나세산업 대표), 이철성(현대삼호중공업) ▲국무총리 표창=이승용(구일공조 대표), 장철기(화천기공 차

장)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성정환(연호전자 상무), 김원진(동화산기 과장), 피영실(동화산기 사원), 김운배(장호엔지니어링 전무), 신갑진(장호엔지니어링 차장), 이정연(한일종합기계 대표), 이봉삼(태봉 대표), 나원주(확인코리아 대표), 광경민(거성전자 대표), 서재필(금공공업 주임), 박영우(대우에이텍 회장), 박상훈(무등 대리), 이양숙(무등 계장), 이일오(현대삼호중공업 차장), 정화규(세영플러머 대표), 남재술(남선하이테크 대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새마을금고·신협·저축銀 내년부터 수표 발행

이르면 내년초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 금융계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은 각 중앙회 또는 연합회에 예치한 금액 한도내에서 중앙회를 지급인으로 한 수표를 발행하는 쪽으로 정부 당국과 의견교환을 했다.

서민금융기관이 수표발행 후 지급결제를 상에 빠질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이들 금융사의 수표발행에 유일하게 반대해온 한국은행은 개별 금융사가 아닌 각 중앙회 명의로 예치금 한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안에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서민금융기관의 수표 발행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관련법규의 보완을 거쳐 이

르면 내년초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기관은 각 금융사의 고유상호별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중앙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과 지급인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되며, 이들 중앙회에 소속된 금융사들은 중앙회 명의로 발단예금에 일정액을 예치한 후 예치금 한도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현행 수표법 시행령에는 수표발행의 주체를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들이 각 중앙회를 통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각 중앙회를 열거하는 식으로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을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경제성장 전략 없으면 FTA 효과 없다”

멕시코국립대 교수 지적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 경제성장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경제성장 전략이 부족하면 FTA를 체결해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래온 벤데스키 멕시코국립대학 교수는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FTA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경험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벤데스키 교수는 “멕시코는 NA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이 부족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NAFTA는 멕시코의 정치적인 전략이 불과했고 경제적인 전략이나 산업발전 방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벤데스키 교수는 1990년 이후 17년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2%에 머무는 등 성장이 저조한 상황이고, FTA 체결 이후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산업기지로 활용하면서 멕시코 경제는 몇 개의 소수 산업에만 의존하게 됐다고 말했다.

벤데스키 교수는 특히 멕시코가 그동안 성장이 정체되면서 노동 가능 인력을 흡수하지 못했고 실업도 늘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국가간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미국 거주 멕시코인들이 급격히 늘면서 미국이 멕시코 산업의 큰 시장이 될 수 있었지만 멕시코는 그 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가들이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는 그 효과가 다른 국가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벤데스키 교수는 그러나 멕시코의 이 같은 성장 부진은 FTA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성장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FTA를 경제성장과 복지·고용 증진 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韓電, 중국에 발전소 준공

29일 중국 허난성(河南省) 지아쥬시(焦作市) 우즈현(武陟縣)에서 열린 우즈 유동충 열병 발전소(10만kW) 준공식. 이 사업은 한국전력의 중국 진출 첫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시진은 여자를 제외하고 왼쪽 네번째부터 한준호 한국전력시장, 왕슈산 허난성 비상장 등이다.

/연합뉴스

올 취업뉴스 1위 “청년 실업률 21년만에 최고”

청년 실업률이 2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올해 채용담당자가 꼽은 취업뉴스 1위에 꼽혔다. 채용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채용 담당자 504명을 대상으로 올해 취업시장 10대 뉴스를 조사,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청년실업률 21년만에 최고치 기

록’이 59.1%의 지지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생들의 공무원 선호현상(57.7%)’과 ‘비정규직의 3분의 1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55%)’가 각각 2.3%에 랭크됐으며 ‘직장인 자기개발 스트레스’와 ‘신입사원 12% 1년 이내 이직’이 47.8%의 지지를 받아 공동 4위

를 차지했다. 이 밖에 ▲대기업 채용방식의 변화(40.9%) ▲올해 대졸자 2%만 취업(39.5%) ▲국내 주요 대기업 70% 영어인터뷰 시행(35.3%) ▲중기 80% 신입연봉 2천만원 이하(33.7%)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지.비.씨 유통	사무관리/영업관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01	062-350-8170
㈜목림	정규직 영업관리 사원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2	062-224-3478
롯데쇼핑(롯데세네아미광주6)	롯데쇼핑(주)롯데세네아미광주6에서 영사기사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02	062-221-1950
신안건설산업	아파트 신축현장 견학대리	초대졸/경력4년	회사내규	12/02	02-320-9721
현이종합건설	건설회사 경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2/02	062-681-5204
글로벌광통신	총무부(회계, 총무관리, 문서관리, 파일관리 등)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3	062-973-6114
iAE 유학네트 광주지사	[해의 유학/어학연수 상담 및 관리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3	062-226-2220
㈜나우텍	영업(납품)관리 / 생산기능직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05	062-944-9002
보리정밀	생산직 검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06	062-953-3016
㈜진우전력	전기공사 현장시공직(전공,조공,신입)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6	062-364-9557
영진종합건설	종합건설회사 총무부 직원채용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12/06	062-226-2220
광합동	사무관리 직원 구함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07	061-399-2402
㈜씨케이	경리/회계/물류관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09	062-951-1581
남선정보	담당기 개통 업무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10	011-612-0199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개미들 절반 이상 을 주식투자 손실

증권포털사이트 팩스넷 조사

개인투자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손실을 본 투자자 10명 가운데 4명은 원금의 50% 이상을 깨먹어 박스권 장세에서도 손실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증권포털사이트인 팩스넷이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개인투자자 1천524명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수익률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4%가 “손실이 났다”고 답했다. “수익이 났다”는 응답은 35.6%, “본전이다”는 답변은 14%에 그쳤다.

특히 원금의 50% 이상을 깨먹은 투자자는 30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0.1%에 달했다. 이는 손실이 났다는 응답자 768명의 40%에 해당한다.

손실이 30~50%에 달한다는 투자자도 전체 응답자의 15.4%였으며 손실이 30% 이하인 투자는 전체의 14.9%였다.

반면 올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낸 이들의 성적표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17.8%인 271명이 수익률이 30% 이상이라고 답했다. 수익이 났다고 응답한 543명 가운데 절반이 수익률 30% 이하인 셈이다.

이어 30~50%의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는 전체 응답자의 9.1%, 수익률이 50% 이상인 이른바 ‘대박 투자자’는 전체의 8.8%에 불과했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올해 주식투자 성적표는 대부분 당초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셈이다.

연초에 잡았던 올해 목표수익률을 묻는 질문에 36.2%가 50% 이상이었다고 답변해 실제 이같은 대박을 실현한 8.8%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부회장 승진



신세계 그룹은 정용진(사진) 부사장과 과 구학서 사장을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영지원실 관리담당 하인철 상무와 백화점부문 지원본부장 장영철 상무, 죽전점장 박건희 상무, 이마트부문 심화섭 상무가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부사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직급상 두단계나 도약한 부회장으로 승격됨에 따라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체제’로의 개편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